

■ 전진농업 현장 1 포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정화 ■

본지는 포천농업인의 위상과 농업현황 등을 알아보기 위해 '전진농업 현장'을 기획연재기로 했다. 연재에 앞서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30여년을 근무하고 소장으로서 취임한 박정화 소장을 만나 포천농업의 현황과 비전을 들었다. 박 소장은 포천에서 경쟁력 있는 농업, 농가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그동안의 기술지도와 마케팅 연구 등을 통해 얻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기획연재는 각 지역마다 선진농가를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추천 받아 게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연재를 통해 포천농업의 현주소와 확실한 비전이 제시 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주)

“포천농업 명품화로 승부 걸겠다”

농업교육기관 기능강화·생활속의 농업 실현

농업기술센터 박정화(사진)소장은 포천 농업발전의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다. 박 소장이 밝힌 포천 농업의 발전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농업교육기관 기능강화다. 둘째, 소비자와 함께 하는 생활속의 농업이다. 셋째, 포천농업의 명품화다.

박 소장은 농업교육기관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농업인 교육▶소비자 교육▶그린농업 대학 운영▶품목연구회 활성화▶과학농사실 활성화▶농촌지도공무원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와 함께하는 생활속의 농업을 위해서는 ▶녹색체험교실▶쌀사랑교실▶농기계 박물관▶구절초 활용방안▶포천자연생태공원 조성▶농촌복지기반을 구축하고 포천농업의 명품화를 위해서는 ▶인산 명품화▶백운한우 브랜드 강화▶사과 명품화▶생산이력제 활성화▶농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교육은 전문기술능력과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전문인력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전문·기업농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문농업인을 육성해야 한다.

소비자교육은 외국 농산물 시장개방 및 소비자시대를 맞아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농업·농촌을 이해시켜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린농업대학운영은 21세기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기본 소양을 갖춘 농업인을 발굴하여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농업선도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제1기 그린경영과정, 2006년 제2기 인산과정, 2007년 제3기 한우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품목연구회 활성화는 품목별 연구회 운영 집단지도, 농업정보·기술 상황평준화, 경쟁력 갖춘 품목 품질균등화 집단브랜드 및 지명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농사실 활성화 시책으로는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분석항목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피해 최소화 및 서비스질



박정화 포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

향상과 포천 농특산물 가공제품개발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부추진계획은 친환경농업 관리실, 가축질병진단실, 병해충종합진단실, 농산물이용가공실, 지역특화실현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촌지도공무원의 전문화 시책으로는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자기학습을 통한 전문능력 개발로 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소비자와 함께 하는 생활 속의 농업시책인 녹색체험교실은 원예활동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정서함양, 농업농촌 이해 확산과 원예치료공간 설치로 주민에게 실질 녹색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주민 및 학생에게 국가 기반산업인 농업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쌀사랑교실은 농산물 수확까지 영농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하고 쌀 소비의 미래고객에서 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농기계박물관은 건축하여 전통농경문화와 유산을 수집·전시·보존·계승해 선현들의 열과 지혜를 본 받아 우리문화의 자긍심을 높

이며 후세대에게 농업의 올바른 이해를 촉진시켜 농업의 중요성 의식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구절초 활용방안은 포천시화인 포천구절초를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포천구절초 마을을 육성하고 축제로 정착,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포천 제1의 관광마을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사회 내의 어린이·여성·노인을 중심으로 한 자조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및 생활환경 정비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으로 농촌노인의 사회활동을 참여를 촉진하는 농촌 복지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포천자연생태공원조성 사업으로 자연생태공원 조성에 따라 포천문화와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도시소비자와 농촌과의 교류협력을 함으로써 원천적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농촌사회의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포천농업의 명품화 사업으로 인산과, 한우, 사과, 경영을 들 수 있다.

인산명품화는 신제품 확대보급 및 연작장애 경감을 위한 논삼재 확대와 자체 브랜드 개발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백운한우브랜드강화책으로 브랜드 활성화 및 육성지대로 지역명품화 창출과 친환경사육관리시스템 도입 및 기술지도로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과명품화 사업은 브랜드 강화 및 육성지대로 지역명품화 창출로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및 기술지도로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 농축산물의 이력정보 공개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생산이력제 활성화사업과 지역정보를 시스템화하여 체계적인 컨설팅을 실시하는 농업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다양한 사업을 통해 포천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을 밝히는 박 소장의 얼굴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방 우리 지역의 사업소 66 천보산 주유소

자동차의 엔진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주유소



SK 대표이사 정호석

“언제나 즐겁고 모든 사람에게 배려하며 친절하고 예의 있는 천보산 주유소가 되자” 사무실 안에 들어서면 눈에 보이는 문구다. 변함 없이 찾아주는 고객을 위해 직원들이 꼭 준수해야 할 몇 가지 사항 중 하나다.

천보산 주유소(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562-1번지 대표이사: 정호석)는 양질의 기름류(휘발유, 경유, 등유)를 공급한다는 계획아래 지난 1995년 개점, 이년 후인 1997년 법인으로 전환해 10여

경품이나 이벤트를 통해 고객몰이에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있다.

SK 주유소는 정규업체 최초로 고객들에게 다 양하고 획기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엔크린 보너스카드, 해피백 프로그램 등 다양한 테마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굳히며 국내시장 60%이 상 점유율로 국내유가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현재 SK 천보산 주유소는 10여 년 동안 협력업체와 고객들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시스템으로 현재 약 40여 업체와 끈끈한 관계를 맺으며 고객들에게 믿음까지 제공하며 건전한 주유 문화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마일리지카드발급으로 주유 누적포인트를 적용해 고객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 주유한 고객들에게는 시원한 요구르트와 화장지, 워셔액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친절함이 더해 다시 찾고싶은 주유소를 지향하고 있다.

언제나 정품정량으로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정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곳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기존의 손 세차장을 내달부터 최첨단 기계를 도입해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며 주위의 공간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오일교환까지 할 수 있는 신개념 주유소로 탈바꿈 할 예정”이

정품 정량 신속한 배달은 기본 한번에 주유, 세차, 오일교환까지

년 동안 지역 고객들을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현재 포천시 관내에 약 140여 개의 주유소 중 10여 곳의 폐업 상태에 이종 SK 주유소가 차지 하는 비율은 약 60%로 국내 최초의 정유회사 위치를 고수하며 꾸준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SK 천보산 주유소는 세계 초일류 품질을 자부하는 SK의 제품을 등에 업고 정품정량, 신속배달로 고객만족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며 고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내실을 다지고 있다.

정 대표이사는 “이제는 주유소가 단순히 기름만 주유하는 차원을 떠나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발견해 고객맞춤형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1996년 전에는 유가가 정부고시기로 정해져 있어 마진율에서도 현재보다 월등하게 좋았었고 그 이후로는 주유소마다 유가가 자율경쟁으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라고 말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SK 천보산 주유소를 찾는 고객들은 주유에서 세차, 오일교환까지 한번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언제나 SK 천보산 주유소와 함께 한다는 동료애에 거주하고 있는 P모씨는 지방을 자주 왕래하는 편인데 같은 금액으로 모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지방에 갔다오면 중간에 한 번 더 주유를 했었는데 이 곳에서 주유하면 집에까지 도착한다며 SK 천보산 주유소가 정량과 연비가 좋은 질 높은 기름을 판매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정규업체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SK 정유와 함께하는 SK 천보산 주유소는 꾸준한 고객들의 사랑을 받으며 믿음과 신뢰로 고객들에게 보답하고 있다.

문의 031)542-5456~8

정병갑기자 jpk61@paran.com



천보산 주유소는 양질의 기름류를 공급한다는 계획아래 지난 1995년 개점, 이년 후인 1997년 법인으로 전환해 10여 년 동안 지역 고객들을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해외바이어초청 비즈니스 상담회 중간보고회

1:1 미팅으로 실질적인 비즈니스 제휴의 장 토대 마련

포천시가 오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영북면 산정호수 한화리조트에서 개최하게 될 2005 포천시 해외바이어초청 비즈니스 상담회 중간보고회가 지난 15일 포천시청 소회의실에서 마련됐다.

저비용·고효율의 해외판매를 위해 개최되는 비즈니스 상담회의 중간보고회에는 박윤국 포천시장, 홍성훈 포천시회의회장 및 운영업체인 서울컨벤션서비스(주)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해 진행했다.

서울컨벤션서비스(주)에 따르면 해외바이어 및 포천시내내기업이

참여하게 될 이번 상담회는 포천시가 주최하며, 비즈니스 상담회는 바이어와 업체간의 1:1 미팅을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제휴의 장으로 계획된다.

또한 우선 비즈니스 상담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예약을 통한 미팅운영을 원칙으로 한 사전예약 시스템 도입 ▶현장진행자의 미팅 접수 ▶운영지원을 위한 통역 및 안내 요원배치 통한 참가자 불편사항 해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상담회를 위해 현재까지 26개국 46개의 외국 업체가 등록했으며, 포천시는 상담회에 참가하게

될 섬유 및 의류, 건축 및 토목자재, IT, 가구, 기계류, 섬유가공부자재, 전기전자, 화학제품, 식품류, 자동차부품, 주방용품, 문구류 등의 품목을 생산하는 관내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7월 30일까지 상담회 참가희망업체를 모집한다.

포천시는 이번 상담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외국업체 15개와 관내 60개의 업체로 숫자에 제한을 두고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업체의 중간보고회를 겸정한 포천시 관계자들은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도되고 있는 해외바이어초청비즈니스 박람회라며 ▶'사라'와 자연이 만나는 도시' 포천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과 ▶각종 홍보활동 철저



포천시가 오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영북면 산정호수 한화리조트에서 개최하게 될 2005 포천시 해외바이어초청 비즈니스 상담회의 준비를 위한 중간보고회가 지난 15일 포천시청 소회의실에서 마련됐다.

▶영문메뉴 및 국가별 국가 계약으로 친근감 조성 ▶참가 대상 국가 및 업체의 확대 ▶현재 사용되는 상담회의 명칭 제고 ▶행사장의 변경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간이과세자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간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 배제대상인 사업자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1매로 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하여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가산세	
-매출액(공급대가)	
-매출액 이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제조업, 소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농·수·임·어업, 기타서비스업	30%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40%

- 공제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면세사업 관련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100(음식점업·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는 15/1,000)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공제합니다. [제출서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 의제매입세액공제
 - 음식점업 사업자가 쌀과 고기 등의 원재

료(면세농산물)를 매입하면서 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액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5/105(2006.12.31까지) [제출서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전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를 직접 전자신고할 경우 신고건당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1~6월까지의 공급대가(총매출액)가 1,2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확정 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고납부세액 제외)

• 단 납부부무를 면제받은 간이과세자도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료제공: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산업안전사고 예방

호퍼에 원료투입 작업 중 추락사고

광석을 분쇄하여 규소를 생산하는 작업장에서 규소를 소포장하기 위해 통백(1.5톤)에 들어있는 규소를 크레인으로 운반하여 2.6m 높이 호퍼에 투입작업을 하던 중 흔들리던 통백에 충돌 후 작업발판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발생상황도

재해발생 원인으로서는 안전간간 미설치한 것으로 작업장의 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에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한 장소에는 안전간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했다. 또한 좁은 작업발판 및 원료투입구 위치가 부적절했던 것으로 작업발판(155×46cm)이 협소하여 작업자가 통백 하부에 묶여 있는

의와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간간 설치하는 것으로 작업장의 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에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충분한 강도의 안전간간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작업발판 폭 확대로 작업발판(155×46cm)이 협소하여 호퍼 상부에서 작업시 통백에 부딪쳐 작업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작업발판 폭을 확대하여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며, 크레인 진행방향 표시로 크레인 운행방향을 작업장의 천장이나 기타 고정물에 부착하여 크레인 운전시 오작동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

자료제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031-826-6091)